세상 기쁨을 죽이는 복지 기쁨

(민36:1~13)

5.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요셉 자손 지파의 말이 옳도다
6. 슬로브핫의 딸들에게 대한 여호와의 명령이 이러하니라 이르시되 슬로브핫의 딸들은 마음대로 시집가려니와 오직 그 조상 지파의 종족에게로만 시집갈지니
7.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지 않고 이스라엘 자손이 다 각기 조상 지파의 기업을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니
8.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중 그 기업을 이은 딸들은 모두 자기 조상 지파의 종족되는 사람의 아내가 될 것이라 그리하면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조상의 기업을 보전하게 되어
9. 그 기업이 이 지파에서 저 지파로 옮기게 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 지파가 각각 자기 기업을 지키리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 중심으로 <세상 기쁨을 죽이는 복지 기쁨>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세상 기쁨을 죽이는 복지 기쁨'
제목이 좀 살벌하기는 합니다마는 오늘 민수기 마지막 장입니다. 이 마지막 장의 이야기가 내용적으로는 '이 말씀이다'라는 뜻이 됩니다. 정복해 들어가야 하는 복지에 관한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 복지가 우리의 삶에 적용 될 때에 '젖과 꿀이 흐른다.'는 비유적 표현은 '기쁨과 감사가 흘러넘친다.'는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에게도 기쁨은 있지만, 복지를 살게 될 때에 나타나는 기쁨은 그 기쁨을 죽이는 것이 됩니다. 우리가 복지를 살기 전에는 이 세상에서 기쁨을 추구하며 살았는데, 그렇게 추구하던 기쁨을 죽이는 것이 복지의 기쁨이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 신앙에 큰 혼란이 임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기쁨들의 혼동 때문인데, 타락 이전의 에덴과 이후의 가나안 복지의 공통점은 기쁨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기쁨의 땅이 활성화 되어서 나의 삶의 실제 내용이 될 때에 나타나는 일은, 이 세상의 사람들이 기뻐할 모든 일들을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그 기쁨의 가능성을 원천봉쇄하고 근절해버리는 것입니다. 복지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이 서로 상생하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는데 천적관계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쁨이 아닌 것에 속아서 기뻐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십자가 생활화를 제대로 하면서 기쁨을 누리게 되면 복지의 기쁨도 있고 세상의 기쁨도 덧붙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잘 믿어서 평강한 삶을 누리게 되면 세상 일이 잘되기 때문에 세상에서 형통하는 그 기쁨이 배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세상 일이 형통할 수는 있지만 그 형통이 기쁨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쁨을 죽인다는 것이지요. 형통한 일은 일어났는데 그 일에 기쁨은 없습니다. 나는 세상에서 말하는 기쁨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복지를 사는 선민으로서의 기쁨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기뻐할 일들의 모든 기쁨의 능력을 다 상실하게 하는 것이 복지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일로 기뻐하고 싶으시면 아직은 복음을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복지의 삶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 세상의 기쁨과 천적관계로, 세상의 기쁨을 죽이는 것이고 세상의 기쁨은 사탄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쁘다고 느끼는 것은 사탄이 창조한 기쁨입니다. 돈을 많이 벌수는 있지만 이것이 기쁨이 되지는 않습니다. 복지의 기쁨을 갖게 되면 이것은 더 이상 기쁨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데 이것을 아셨습니까?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건강하기만하면 기쁠 줄로 알죠? 이것이 세상이 만들어낸 마귀의 창조물입니다. 건강과 건강하지 못함은 엄격하게 말해서 복지의 기쁨과 관계가 없어요. 복지의 기쁨은 건강하지 못 할 때의 슬픔도 죽이고, 건강할 때의 기쁨도 죽입니다. 그렇다고 기쁨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를 사는 사람으로서 기쁨을 누리고 있는 것이지요.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연관 지어서 그 특성을 간단하게 살펴봅니다.
우리가 삶에서 가장 경험하기 쉬운 이 세상 기쁨의 특성이 어떤 것이 있을까요? 기쁨의 상대성일 것입니다. 아마 기쁨의 크기가 상대적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 종일 세끼를 굶은 사람과 방금 뷔페에서 배가 터지도록 먹고 나온 사람에게 오천 원짜리 된장찌개를 똑같이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 두 사람에게 있어서 된장찌개가 발생시키는 기쁨의 크기는 너무너무 차이가 나게 됩니다. 또 매일 칭찬만 듣는 아이가 있고 매일 꾸지람만 듣는 아이가 있습니다. 매일 칭찬 듣는 아이에게 주어진 또 한 번의 칭찬과, 꾸중만 듣던 아이에게 주어지는 어쩌다 한 번의 칭찬의 기쁨의 크기는 비교가 안 될 것입니다. 재벌에게 오만 원짜리 한정식과 비정규직 사원에게 오만 원짜리 한정식이 주는 식사의 기쁨의 크기는 완전히 다릅니다. 이것이 세상 기쁨의 두드러진 특징입니다. 그렇게 맛있었던 오천 원짜리 된장찌개가 잘 먹고 잘 사다 보니 별게 아닌 것이 되기도 합니다. 이렇듯 이 세상의 기쁨들의 특징은 크기가 정해져 있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또 이 세상 기쁨의 특징 중의 하나로 기쁨의 일시성을 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기쁨은 어느덧 사라지고 이별의 슬픔만 남았다”라는 노래가 있지만 기쁨이 슬픔

으로 쉽게 전환이 됩니다. 예를 들어 아들이 연세대학에 들어갔다고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 여기저기 일가친척에게 전화를 걸던 중에 시골에 살고 있는 육촌에게도 전화를 걸어서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축하한다고 하는데 그 집에도 비슷한 나이의 조카가 있었던 것이 떠올라서 물어봤더니 그 애도 대학입학시험을 봤는데 서울대를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 연세대학 들어가서 기뻤던 기쁨은 갑자기 시기심으로 바뀌고 감사가 불평으로 바뀌고 연세대에 대한 자부심이 아쉬움으로 바뀝니다. 남이 서울대 들어갔다면 상관이 없죠. 어차피 서울대에 들어가는 사람은 많으니 내 아들이 연대 고대 가는 것이 기쁠 수 있는데, 내 육촌이 서울대 들어갔다고 하면 하나도 기쁘질 않게 되는데 이런 기쁨이 대체 뭐냐는 것입니다.
이렇게 상대적이고 가변적인 기쁨으로 그 크기가 때마다 상황과 조건에 따라서 달라지는 기쁨이 세상 기쁨인데 복지의 기쁨은 이러한 기쁨을 다 죽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변적이고 일시적이고 상대적인 기쁨을 죽입니다.

복지는 에덴의 회복이자 에덴의 또 다른 새로운 형태입니다. 왜 새로운 형태의 에덴이 필요하게 되었습니까? 에덴은 죄가 없을 때에 주어졌던 복지이고, 가나안 땅은 죄 지은 이후에 죄인들에게 적합화 된 복지입니다. 그래서 선악과 대신에 번제단이 중앙에 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지의 특성은 그 크기가 달라지지 않고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기쁨을 위해서 복음을 믿고 수용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될 수밖에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복지의 기쁨을 원하지 않고 세상의 기쁨을 원한다는 것은 넌센스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종류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도 요14: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고 말씀하십니다. ‘평안’을 ‘기쁨+감사’라고 할 수 있다면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평안’이라는 것은 ‘그 크기가 결코 작아질 수 없는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슬픔이나 좌절로 변할 수 있는 기쁨이 아니며,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색이 바래지지 않는 기쁨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조건과 상황에 관계없이 똑같은 크기로 동일하게 주어집니다.
쉽게 말해 복지의 기쁨은 그 크기가 부자도 가난한 사람도 덜 하거나 더하지 않고 똑같이 느끼는 것입니다. 부자가 더 큰 기쁨을 누린다면 그것이 가난한 사람에게는 더 큰 슬픔이 될 수 있을 것인데 똑같습니다. 병든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에게나 똑같습니다. 승진한 사람이나 탈락한 사람에게나 똑같은 크기로 임합니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부자 됨이 주는 기쁨과 가난함이 주는 슬픔을 다 무력화 시킨다는 것입니다. 부자도 똑같이 느끼고 가난해도 똑같이 느낍니다. 가난하다고 더 많이 느끼는 것도 아니에요. 부자이기 때문에 좋고 기쁘고, 가난하기 때문에 슬프고 안 좋은 것이 무력화 되어 버리고, 병이 들었을 때의 슬픔도 건강할 때의 기쁨도 무력화되는 것입니다. 부자에게도 가난한 자에게도 병자에게도 건강한 자에게도 똑같이 주어

지는 것입니다. 승진한 사람도 똑같은 크기로 기쁘고 승진을 하지 못한 사람도 똑같은 크기로 기쁩니다. 승진의 효력과 탈락의 효력, 슬픔과 기쁨을 다 죽이는데 신기하지 않습니까? 복지의 기쁨은 이 세상의 기쁨을 죽임과 동시에 슬픔도 무력화 시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복지의 기쁨의 크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민수기를 마치십니다. 민수기 27장에서 등장했던 슬로브핫의 딸들의 땅 분배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기억합니다. 아들 없이 딸만 다섯을 둔 채로 아버지 슬로브핫이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비뽑아서 땅을 분배할 때에 아들을 중심으로 분배를 하니 딸들만 있는 집에서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게 되자, 다섯 딸이 와서 모세에게 청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땅을 분배해주라고 하셨고, 딸들의 이름으로 땅이 분배되는데 이들이 므낫세 지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생각해보니 슬로브핫의 다섯 딸들이 땅을 분배받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그들이 시집을 가게 되면 남편의 소유로 귀속이 되는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는 그 아내 자체도 남편의 소유물로 취급되던 시대였습니다. 남편이 므낫세 지파 사람이라면 상관이 없지만, 예를 들어 유다지파의 사람이라면 므낫세 지파의 땅이 유다지파에 귀속되게 되는 것입니다. 므낫세 지파 가운데에 슬로브핫의 딸들이 받은 땅이 있는데, 그 땅이 섬처럼 유다지파의 땅이 되므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이 볼 때에는 이 문제가 기가 막힙니다. 그래서 므낫세 지파의 두령들이 모세에게 나와서 이야기하니 모세가 하나님께 여쭈어서 대답을 하게 됩니다. '딸로서 땅을 분배받은 여자들은 절대로 다른 지파의 남자들에게 시집을 가지 말고, 같은 지파의 남자에게 시집을 감으로 그 땅들이 다른 지파에게로 가서 감삭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감삭된다.'는 것은 턱에 수염이 나면 수염을 잡아 뽑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떨어져 나간다. 이탈한다.'라는 뜻입니다. 즉 므낫세 지파에게 할당되어진 복지의 경계가 쥐가 뜯어먹은 것처럼 줄어들지 않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와 각 가문에게 준 땅들이 줄어들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희년제도가 언급됩니다. 예를 들어 유다지파 사람이 가난해서 므낫세 지파 사람에게 자기 땅을 팔았는데, 50년이 된 후에는 다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나 한 사람에게 주고 싶으셔서 할당하시고 구획을 정해 놓으신 복지의 크기는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므낫세 사람들은 자기 지파의 경계가 허물어지고 뜯겨나가고 줄어들 것을 걱정했습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면 하나님의 할당하신 복지는 절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크기에서 변함없이 유지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복지의 크기에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의 실제 생활에 적용시켜서 말씀을 이해하자면 '우리가 복지를 살 때에 누리는 기쁨과 감사의 크기에 변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의 감사하라"는 것이 복지의 삶의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조건과도 기쁨이 결탁되어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세끼를 굶었으면 된장찌개로 크게 기뻐할 것이고, 뷔페로 배불렀을 때에는 된장찌개는 필요 없어서 전혀 기쁨이 안 될 것입니다. 이렇듯 항상 기뻐하는 것은 내 조건에 따라서 크기가 바뀌는 그런 기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굴곡이 심하더라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복지를 사는 것은 이미 감사가 충만한 상태로, 이런 일을 만나고 저런 일을 만나고 범사를 만날 때 반응이 감사로 나오고, 죽으나 사나 가지고 있는 것은 감사이므로 반응이 감사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돈을 못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잘 벌 것을 기대하고 감사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복지는 이미 내 마음에 이 세상일과는 무관하게 기쁨과 감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제주도가 한반도와 떨어져있는 섬인 것처럼 복지의 삶에서 갖게 되는 기쁨은 이 세상과 떨어진 섬과 같은 것입니다. 세상과 무관한 섬처럼 내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가 존재하면서, 일들이 주어지고 사건들이 주어지고 상황이 바뀐다고 하여도 이미 있는 기쁨과 감사로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일에 대해서 감사하거나 일관된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일과 무관하게 이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상태에서 세상일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가 돈을 많이 벌어서 기뻐했다가도 복음을 받아들이면, 마음에 기쁨이 주어진 상태에서 더 이상 돈이 기쁨이 되지 않게 됩니다. 가난한 사람도 돈이 없는 것이 슬픔이었다가 복지의 기쁨을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가난이 슬픔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가난한 상태에서 돈을 벌어도 그것이 기쁨의 이유가 되지 않는데, 이것을 민수기 마지막 장에서 확인시켜 주시고 도장을 찍어 주시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이냐? 크기가 변하지 않는 기쁨을 얻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기쁨은 상황과 조건과 시간에 따라서 크기가 다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크기가 변하지 않는 기쁨이 어떻게 존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나안 복지의 삶은 크기가 변하지 않는 기쁨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려면 세상의 기쁨이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것을 기뻐하고 슬퍼하는 상황에서는 복지의 기쁨을 가질 수가 없는데 이 이야기가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 복음 사건이 이 복지의 기쁨을 우리에게 주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인간은 기쁘지 않으면 살 수가 없고, 감사한 마음이 없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데 이것이 인간의 마음의 구조입니다. 그런데 세상에서 추구하는 기쁨과 감사의 조건에 대해 십자가에서 죽어서 그 효력을 무력화하게 됩니다. 오직 기쁨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으로 채우고 하나님을 갖게 됨으로 감사로 충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사업이 잘 되고 안 되더라도 내게 금과 은은 없더라도 있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갖게 된 감사밖에 없으니 감사가 나오는데, 사업이 잘 될 때 감사하는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완전히 다른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상태에서 감사하려고 하고,

그럴 때에 감사헌금이라도 드리려고 합니다. 감사헌금도 미리 투자하는 식으로 해서 미리 감사하면 하나님께서 세상일을 잘 되게 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죠.

민수기 마지막에 하신 말씀은 '복지의 크기를 변동시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복지의 크기는 하나님이 정해주신 크기에서 조금도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늘어날 수도 있지만 오늘 본문의 초점은 줄어드는 것에 맞추어져 므낫세 지파의 걱정과 본문이 맞물려 내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줄어드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말씀하시는데 '줄어들 수 있고 변할 수 있는 기쁨은 추구하지 말라'는 것이 민수기의 결론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시간이 지나면서 바래지거나 조건에 따라서 크기가 변하는 가변적인 기쁨을 추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은 가변적이고 시간이 지나면서 색이 바래지고 크기가 상대적으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기쁨이 아니라고 못을 박아 두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세상이 주는 기쁨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입니다. '기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기쁨으로만 살라'는 것이 복지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을 살 때 기쁨이 없느냐? 아니요. 하늘의 기쁨으로 세상일에 반응합니다. 하늘에 대한 감사로 충만한 상태에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것이죠.

오늘 아침에 각오를 하나 합시다. '세상 기쁨을 십자가로 죽이자!'라고 해야 복지의 기쁨이 내 것이 됩니다. 복지의 기쁨과 세상의 기쁨은 병존할 수가 없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기뻐하는 사람이 하나님으로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반칙이고 간음입니다. 하나님으로 기뻐하면서 승진도 기뻐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승진을 해도 못해도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객관적인 뜻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 이루고 싶은 역사를 위해서 객관적인 계획을 실행해 나가시는 것뿐이지, 그것이 내게 기쁨의 이유도 아니고 슬픔의 이유도 아닙니다.
저는 승진하지 못해서 60살이 넘도록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도 봤어요. 또한 초고속 승진을 해서 갈 데까지 다 간 후에 50대 중반에 퇴직할 수밖에 없었던 분도 여럿 봤습니다. 그렇게 세상의 기쁨을 추구하는 것이 다 우상이고, 세상 사람들이 기뻐하는 기쁨은 사탄의 창조물입니다. 에덴이 기쁨인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은 하나님자신으로부터만 나옵니다. 하나님 자신을 가질 때에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기쁨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의 창조물인 기쁨을 가져야 사는 것처럼 살 수 있고 생명 있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복지의 기쁨은 세상의 기쁨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의 생활화를 통하여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죽는 사람만이 실제 이 땅의 삶에서 복지의 기쁨을 활성화 시켜서 진정한 복지를 살 수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주님의 십자가를 생활화함을 통하여 이 세상의 기쁨에 대해서 죽고 이 세상의 슬픔에 대해서 죽고 세상일의 근심에 대해서도 죽음으로써 오직 마음이 하늘을 향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크기로 예비하신 그 기쁨을 활성화시키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